

6/17(목) 느헤미야 묵상 13

느헤미야 7:6-73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수효를 계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목록이 있고 느헤미야가 계수한 자들은 1-3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제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숫자는 42,360명이 귀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에 2: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제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의 숫자는 1,775명입니다(에 8장). 이 숫자는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비해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1세대 유다 백성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고향으로의 귀향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 당시에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느 2: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추정 건대 소수의 인원 만이 느헤미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모두 합친다면 약 5만명이 안 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학자들에 따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1-3차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약 20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 1-3차에 걸쳐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숫자는 남자만 약 5만명 그리고 남녀노소를 모두 합친다면 약 20만명이 되는 인원으로 추정됩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약 10%의 인원만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거룩한 씨요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입니다(사 6:12-13,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고 자녀의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에스터 시대를 거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에 8:17,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그곳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2세와 3세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더 나은 삶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제 1차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방해로 인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도 아마 2차, 3차 포로 귀환의 숫자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후 약 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모두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즉 영적인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속하여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과 기업에서 일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우선순위에 있어 하나님은 삶의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거룩한 씨이며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총 61 건으로 전년도의 40 건보다 50%나 늘었으며, 이 중 교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42 건에 달한다. 한편 계속되는 총기 난사의 참극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10 대 총기 난사 사건이 늘면서 총기 구매 연령을 20 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권총은 21 세, 소총은 18 세부터 구매할 수 있다. 총기 난사로 인해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총기에 대한 강력하고 올바른 규제대책이 마련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화해와 평화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